

www.jbe.go.kr

중국 길림성교육청 방문 결과 보고서

2015. 11.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 총무과]

목 차

I. 방문목적	1
II. 방문개요	1
III. 방문 주요일정	3
IV. 길림성교육청 현황	4
V. 길림성교육청 및 교육기관 방문 협의내용	9
VI. 방문지 소개	10
VII. 방문후기	15

중국 길림성교육청 방문 결과 보고서

I 방문 목적

- 국제 교육 교류·협력을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균형감각 함양
- 상호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
- 현지 역사·고적지 탐방으로 올바른 민족사적 세계관 형성

II 방문 개요

1. 방문국 : 중화인민공화국(길림성 교육청)
2. 방문기간 : 2015. 10. 26.(월) ~ 10. 30.(금) 4박 5일
3. 주요일정

일 자	장소	오 전	오 후	비고
10.26.(월)	장춘	○출국	○길림성교육청 대표단 환영행사 및 만찬	
10.27.(화)	장춘	○장춘시 교육국 방문 ○초등학교 방문	○중학교 방문	
10.28.(수)	장춘	○직업학교 방문	○이동(장춘→북경)	
10.29.(목)	북경	○문화유적지 탐방	○문화유적지 탐방	
10.30.(금)	북경	○문화유적지 탐방	○귀국	

4. 방문 대표단

순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1	전라북도교육청		김○○	남	단장
2	"		이○○	남	
3	"		신○○	남	
4	"		도○○	여	
5	"		김○○	남	
6	신흥고등학교		곽○○	여	통역

5. 방문단 주요 활동

- 교육기관 방문
 - 길림성교육청, 장춘시 제1실험은하초등학교, 장춘시 제108중학교, 장춘직업기술학원(전문대학)
- 문화유적지 탐방
 - 천안문 광장, 이화원 공원, 천단공원, 왕푸징 상가
- 학생 미술 및 장학자료 전달
 - 미술작품 15점, 장학자료 3종

Ⅲ

방문 주요일정

일정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1일차 10. 26. (월)	09:40~10:55	○ 출국(인천공항 → 장춘) <아시아나 항공 OZ 0303편>	
	11:00~11:30	○ 중국 입국(수속) ○ 길림성교육청(국제처 왕디) 영접	
	11:30~15:30	○ 중식 및 이동(호텔 → 길림성교육청)	
	15:30~17:30	○ 길림성교육청 대표단과 미팅 -교육호텔 3층 회의실(청임원, 국제처, 기교처, 직교처, 비서실)	
	17:30~20:30	○ 우리 교육청 대표단 초청 만찬 -소○○ 부청장 주관	
2일차 10. 27. (화)	08:00~08:30	○ 조식	
	09:00~12:00	○ 장춘시 제1실험은하초등학교 방문	
	12:00~14:00	○ 우리 교육청 대표단 초청 오찬 -손○○ 당서기 주관	
	15:30~17:30	○ 장춘시 제108중학교 방문	
	17:30~19:30	○ 만찬	
3일차 10. 28. (수)	08:00~09:00	○ 조식	
	09:30~11:30	○ 장춘직업기술학원(전문대학)	
	11:30~13:00	○ 중식	
	13:00~14:00	○ 공항이동	
	15:30~17:30	○ 이동(장춘→북경)	
	17:30~20:00	○ 만찬	

일정별	시 간	행 사 내 용	비고
4일차 10. 29. (목)	08:00~08:30	○ 조식	
	08:40~12:30	○ 천안문 광장 관람	
	12:30~13:30	○ 중식	
	14:00~17:00	○ 이화원 공원 관람	
	18:30~19:30	○ 만찬	
5일차 10. 30. (금)	08:00~08:30	○ 조식	
	09:00~12:30	○ 천단공원, 왕푸징 상가 관광	
	12:30~13:30	○ 중식	
	13:30~16:30	○ 북경공항 이동 및 항공기 탑승	
	16:30~19:25	○ 인천공항 도착 <아시아나 항공 OZ 0344편>	
	20:00~23:30	○ 이동(인천공항 → 전주) ○ 해산	

IV 길림성교육청 현황

□ 일반 현황

- 총 원 : 109명
 - 주요 기구
 - 교육청(20) : 1실 1단 18처
 - 직속기구(20) : 2실, 10중심, 1방송국, 1신문사, 1과학원, 2학교, 1고사원, 1교육관, 1처
 - 관할 교육국 : 9 교육국(장춘시, 길림시, 사평시, 요원시, 통화시, 백산시, 송원시, 백성시, 연변주)
- ※ 9 교육국 산하에 58구·현교육국 소재

○ 학교 현황(길림성 내)

(인원단위:천명)

구 분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비고
유 치 원	3,808	44.2	2.5	
소 학 교	5,103	136.2	10.3	
중 학 교	1,200	64.5	7.4	
고등학교	243	45.3	3.2	
계	10,354	290.2	23.4	

□ 길림성교육청 주요 기구

순	부 서 명	부서장 성명	비 고
1	청 장	장○○ 張○○	
2	부 청 장	전○○ 戰○○, 소○○ 蘇○○, 구○○ 邱○○, 반○○ 潘○○, 이○○ 李○○	
3	판 공 실	임○○ 林○○	
4	법 규 처	강○○ 姜○○	
5	발전기획처	이○○ 李○○	
6	인 사 처	황○○ 黃○○	
7	간 부 처	양○○ 楊○○	
8	재무심계처	묘○○ 苗○○	
9	기초교육처	제1처 류○○ 劉○○ 제2처 양○○ 楊○○	
10	직업성인교육처	송○○ 宋○○	
11	고교교육처	송○○ 宋○○	

순	부 서 명	부서장 성명	비 고
12	민족교육처	포○○ 包○○	
13	사범교육처	소○○ 蘇○○	
14	교육독도단	무○○ 武○○	
15	사 정 처	류○○ 劉○○	
16	학 생 처	장○○ 蔣○○	
17	학교안전처	로○ 盧○	
18	과연산업처	손○○ 孫大文	
19	체육위생예술처	류○ 劉○	
20	국제합작교류처	호○ 胡○	
21	고교기공위(紀工委)	진○○ 陳○○	
22	노간부처	두○○ 杜○○	
23	직속기구(20)	길림성교육청기관서비스 센터, 길림성교육고사원, 길림성교육과학기술산업서비스센터, 장춘외국어학교, 길림성제2실험학교, 길림성교육정보센터, 길림성고교졸업생취업지도센터, 길림성교육과학원, 길림성학교후방근무관리지도센터, 동북삼성조선문판공실, 길림성전화교육관, 길림성중초등학교덕육공작판공실, 길림교육방송국, 길림성교육기술장비센터, 길림성교육잡지사, 길림성교육기금회사사무처, 길림성교육국제교류서비스센터, 길림성표준어교습시험센터, 길림성학생지원센터, 길림성대외한어교습훈련센터	

□ 길림성 교육 소개



- 길림성은 학교교육의 발전이 비교적 빠른 성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길림성의 교육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학교의 경영체제 개선과 투자를 통하여 학교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졌으며, 중국 내에서도 높은 지명도를 가진 대학교와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많이 생겨났다.
- 중국 교육부 직할학교인 길림대학과 동북사범대학 뿐 만 아니라 장춘이공대학, 연변대학, 길림성 실험중학교, 동북사범대부속중학교, 장춘외국어학교, 동북사범대부속초등학교, 장춘시 제일실험초등학교 등은 길림성 교육 발전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중국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학교이다.
- 길림성 지역은 문화적으로 북경과 차이가 적고 언어적으로 보편성에 가장 근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학생이 모여 2010년 현재 3,600명 정도가 유학하고 있다고 한다.
- 길림성 정부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중시하여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한 결과 교육 교류가 비교적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게 되어 길림성 각 대학 30여 개 분야에서 박사, 석사, 학사 과정 2천 명 정도의 한국

학생이 유학하고 있으며 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부산대, 인하대와 교류를 하고 있다.

- 길림성에는 소수 민족이 많은 편이며 총 55개의 소수민족 있는데 전체인구의 7.96%에 차지하고 있다. 55개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 인구가 제일 많고 1,040,167명 있다. 길림성 민족교육은 아주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 내 민족교육, 특히 조선족교육의 본보기 된다. 길림성의 연변지구는 조선족자치주로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 앞으로도 길림성 교육은 중국 내 교육 발전을 주도하고 일류 성이 되기 위하여 교육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외국과의 교육 교류도 더욱 확대할 전망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길림성의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한국과의 교육 교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V

길림성교육청 및 교육기관 방문 협의내용

구분	내 용	비고
소충민 부청장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교육청 방문단을 환영함 ○ 길림성 교육현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 : 소학교 7,300개, 중학교 1,300개, 고 293개, 대 46개 (민영대 11) - 길림성은 현재 정책적으로 완화된 교육체계가 향상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망라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음. ※ 교육의 대중화가 빨리 다가 옴. ○ 양국 간 폭 넓은 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교류가 발전되기를 바람. ○ 중한 양국 간 학교 관리를 비교해서 서로 배우기를 희망. 	
김승환 교육감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국인 중국에 대해 축하함. ○ 9월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기념 열병식 축하함. ○ 길림성교육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양 교육청간의 교류는 형식적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 교류가 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교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학교 소개서 전달. 	
류청천 기초교육제1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결연 희망학교에 대한 소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최고의 학교를 선택하여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함. 	
호인우 국제합작교류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 교사 파견에 대해 공자학당에서 우수한 인재를 파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요구하면 국가 측면에서 협의하여 파견할 수 있음. 파견교사의 생활비용은 본국에서 지급하지만 기숙사비 등에 문제가 있음. ○ 중국에 유학하고 싶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은 모두 우리 길림성으로 보내주시면 감사. 	
김승환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교육청은 대학교를 관장할 수 있는지를 질문함. ○ 우리 교육청에서도 화산중학교에 공자 학당을 운영 중에 있으며, 원어민 강사는 노동자이므로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어민 강사 채용 공문을 길림성교육청에 보내 드릴 수는 있음. ○ 학생들의 유학에 대한 것은 길림성으로 갈지 예측하기 어려움. 	

장춘시제1실험 은하초등학교	○ 전연 교장 - 학교소개 청취 및 교육 관심사 의견 교환 - 학교 시설 견학 및 학생 문화공연 관람	
장춘시108중학 교	○ 이철성 교장 - 학교소개 청취 및 교육 관심사 의견 교환 - 학교 시설 견학	
장춘직업기술학 원	○ 설춘지 원장 - 학교소개 청취 및 교육 관심사 의견 교환 - 학교 시설 견학	

VI

방문지 소개

중국 길림성

- 길림성은 중국 동북지구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18만 7,400km²로 국토 총면적의 2%를 차지하는 중급 성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장춘, 길림, 사평, 요원, 통화, 백산, 송원, 백성 등 8개 지급시(地級市), 20개 현급시(縣級市), 18개 현, 3개 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문, 집안 등 9곳의 국경 출입구가 있으며, 전 세계 13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무역교류를 하고 있다.
- 주요 생산 작물은 옥수수와 콩이고 중국 제일의 자동차 공업도시이며 석유화학 공산품이 주생산품이다. 특히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우월한 생태환경 그리고 풍부한 자연자원과 광산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있다.
- 중요 유람지로는 장백산 생태여행지구를 선두로 길림 송화호풍경명승지구, 북대호스키장, 장춘 정월담산림여행지구, 길림 서부해초원습지여행지구 등이 성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 길림성은 역사적으로 구석기시대 말기인 약 4만 년 전에 만주족과

조선족의 선조인 위수인과 안도인이 살았으며, 청나라 초기에 유조변을 설치하여 중동부 지역을 황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족과 몽골족의 이주를 제한하였다. 여기에 만주족 인구가 남쪽인 랴오닝성으로 이주함으로써 1812년까지 인구가 30여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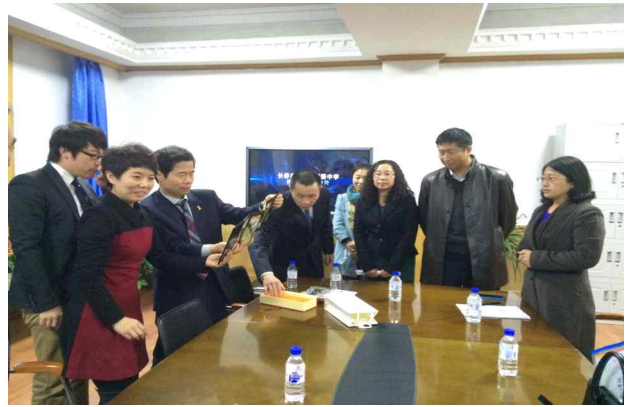
- 청나라 말기에 이주 금지령이 풀리면서 러시아와 일본 세력이 들어와 개발하였고, 여기에 중국 각지에서 생계를 위하여 유입된 사람들이 급증함으로써 1931년 인구가 816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대거 귀국함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중국 건국 이후 다시 빠르게 증가하여 1949년 1,009만 명에서 2002년 2,649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 인구는 약 2,749만 명(2010년 기준)이다.
- 인구 구성은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회족, 석백족 등 44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수민족 비율은 약 9%이다. 연변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된 조선족은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한다.
- 성의 소재지는 장춘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주 벌판의 중심 지역으로 산이 없는 평야지역이며 주변지역은 논보다 밭이 많았고 밭에는 대부분 옥수수가 심어져 있었다. 우리가 방문하는 기간 중 곳곳에서 도로공사와 각종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도시 발전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 다만, 계획도시인 장춘은 도로가 바둑판 형태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자동차의 도시답게 차량이 많아 시내 중심가는 교통체증이 심하였다.

장춘시 제1실험은하초등학교



- 장춘시 제1실험은하초등학교는 1997년에 설립하였고 길림성 장춘시 녹원(綠園)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7년에 설립되어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학교 개교 이래 현재까지 명문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장춘시 시민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
- 학교 대지면적은 2.6951만㎡, 건축 연면적은 1.72만㎡로 실외운동장, 탁구장, 도서관, 음악관, 컴퓨터실, 무용실, 과학실, 요리실, 강당 등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의 환경 친화적인 휴식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현재 재학생은 약 3,492여 명이며, 교직원은 236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은 15명 정도이다. 학교 업무는 교장을 중심으로 부교장 3명이 담당분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학교의 교학이념은 ‘以德爲綱, 以人爲本, 依法治校, 科研興校’로 교학사향이 선진적이다. 교사의 실력은 뛰어나며 학교 분위기가 매우 좋고 학교시설이 우수한 편이다. 현재 학교는 학생들의 우수한 학력신장으로 중국 일류 학교로 발전하고 있다.

장춘108중학교(장춘시제1외국어중학)



- 장춘시 제1외국어중학은 길림성 장춘시 이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2년에 설립되어 43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83년에 “장춘108중학교”에서 “장춘시제1외국어중학”으로 개명하였다. 학교 개교 이래 현재까지 명문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학교 대지면적은 4.9280만㎡, 건축 연면적은 4.4438만㎡로 운동장, 실내농구장, 탁구장, 도서관, 음악관, 강당,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고, 학생들의 환경 친화적인 휴식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 현재 재학생은 약 8,000여 명이며, 교직원은 490명으로 교사 1인당 학생은 17명 정도이다. 학교 업무는 교장을 중심으로 부교장 3명이 담당분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학교에는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총 3개국의 언어 수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는 7명 있다. 장춘시 제1외국어중학은 길림성체육전통학교로 많은 유명한 체육선수를 배양했다. 전반적

인 중국 교육체제가 획일적이고 군사문화적인 것처럼 우리가 방문한 장춘시제1외국어중학도 집단적 획일성을 기초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춘직업기술학원



- 장춘시 위성로에 위치한 장춘직업기술학원(원장 설춘지)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며 2000년 주변 11개 학원이 연합하여 대지 400,000㎡에 건평 250,000㎡의 규모로 설립한 학원이다. 현재 학생수는 11,000여 명이고 교직원은 950여 명이다. 학과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식품과 바이오, 정보통신, 비즈니스, 관광, 국제교류, 철도교통, 매스미디어과가 있으며 전체 취업률은 95% 이상이며 자동차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거의 100%에 달해 인기가 있다.
- 대부분의 이 학교 학생들은 장춘시에서 70%정도가 취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도 취업률에 포함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은 취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취업률이다.

- 이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숙사, 급식,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신경 쓰고 있으며, 취업 회사에 대해서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에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 학교는 중국 전문대학이며 학제가 3년이다. 외국 교육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배재대학교, 광신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서로 교육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들이 장학금과 숙식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다.

VII 방문 후기

[10월 26일(월)]

전라북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사이에 1996년에 체결된 국제교육교류 협약에 의거 금년에는 우리교육청이 길림성교육청을 방문함에 따라 장백군 길림성교육청장의 초청으로 김승환 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방문 대표단이 2015. 10. 26. ~ 10. 30.(4박5일) 길림성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중국 측 업무담당자 왕적(왕띠) 선생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일정과 방문기관을 조정하고 비자 발급, 방문기관 기념품 구입, 개인별 여비 지급, 방문자 사전 미팅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 10. 25. 하루 전에 우리청 버스로 인천 시내에서 숙박을 하고 새벽 6시에 인

천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출국수속을 모두 밟고 아침 식사는 기내식을 먹기로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비행기는 9시 40분에 이륙하였다.

우리 대표단이 장춘 룡지하 공항에 도착하니 길림성교육청 국제교류처 업무담당자 왕적(왕띠) 선생이 마중 나와 있었다. 서투른 중국어로 인사를 마치고 중국 측에서 마련한 미니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도착할 때까지 왕적(왕띠) 선생은 계속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공항이 장춘시와 길림시 사이에 있어 우리 목적지인 장춘시까지는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왕띠 선생의 소개로 통역인 길림재경대학 백윤 선생님을 소개받고 인사를 했다. 왕띠 선생의 안내로 우리가 2일 동안 묵을 호텔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호텔에서 간단히 중식을 마치고 길림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호텔 회견장으로 가자 소충민 부청장을 비롯하여 중국 측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측 대표단은 황종식 인사처장, 호인우 국제교류처장, 기초교육제1처장, 기초교육제2부처장, 직업성인교육부처장, 국제교류 업무담당자 2명, 통역인 길림재경대학 백윤 선생님이다.

양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자 소충민 청장은 “김승환 교육감을 중국에서 2번째 방문하여 얼굴을 뵈니 더 반갑고 환영한다.”는 인사말로 회견을 시작하였다.

회견시간 내내 우호적인 분위기였으며, 양국이 상호 존중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인적교류 등을 확대하자고 하였다.

[10월 27일(화)]

오전에 길림성교육청 직원의 안내로 장춘시 제1실험은하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입구에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안내로 학교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리랑을 연주하고 우리들에게 환영의 목걸이를 손수 만들어 걸어 주면서 우리 방문단을 환영하여 주었다. 학교에 대해 소개를 간략히 듣고 학교 시설을 돌아보았다. 층 중앙에 위치한 도서관에 책이 3만권이 비치되어 있는 모습에 놀라웠다. 할로윈 축제 관련 수업 참관에 교육감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율동을 따라 하시는 모습에서 행복함을 느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각 층에 있는 화장실이 각 나라의 문화를 느끼게 설계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로마시대 화장실 입구에는 로마양식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입구에 스모 복장을 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또한 각 반 옆에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방문단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였다는 느낌 보다는 평소 이런 연습이 잘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생들이 자기 작품을 교육감님께 선물하고 학교 방송반 학생들의 인터뷰를 뒤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오후에는 점심을 마치고 장춘시108중학교 산하 장춘시제1외국어 중학교 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학교는 특이한 점은 장춘시 108중학교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장춘시 108중학교는 사립인데 이 학교는 공립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학교 시간은 8:30분부터 16:30분까지이며 16:30분이면 학생 모두 귀가 조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방과

후 활동이나 학원 수업은 없고 스쿨버스나 도보로 귀가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학생은 학교 중심으로 3.5km이내의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한다.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학교 역사가 게시판에 걸려있는데 네 글자씩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각운을 맞춰 선생님께서 낭독하여 주셨는데 한편의 시를 읽는 느낌이었다. 우리 일행의 방문으로 일과 시간 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 계셔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교무실에 잠깐 들렀는데 과목 선생님이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교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공문을 많이 처리 하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교사는 공문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 업무 처리부서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한다는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시간이 더 많았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10월 28일(수)]

오전에 장춘직업기술학원을 방문하였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며 2000년 주변 11개 학원이 연합하여 설립한 학원이다. 바쁜데도 원장님이 직접 방문단을 환영하여 주었다. 이 학교의 장점은 취업률이 95%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 때문에 엄청 힘든데 이 학교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나라의 취업률을 산정할 때 비정규직도 포함하여 발표하는데 혹시 취업생중에 비정규직은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중국에서는 비정규직은 취업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학교 학생들은 장춘시에서 70%정도가 취업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하는 모습을 관람하였는데 학생

들이 모의로 회사를 설립해보고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실제로 해보고 회사의 맡고 싶은 업무를 직접 해보는 수업을 통해서 취업했을 때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대학과 다른 점인 것 같다. 교내가 너무 넓어서 실습장까지 차로 이동을 하였는데 시설면에 대해서는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학생들의 실습하는 모습은 진지하고 장차 중국을 이끌어갈 산업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오후에는 작년부터 장춘시에 건물에 보일러 설치 사업으로 공기의 질이 좋아 졌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매우 추웠던 장춘시를 뒤로 하고 우리 일행과 길림성 업무 담당자 왕띠와 함께 북경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10월 29일(목)]

북경은 3,000여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역사적으로는 6개조의 고도이다. 이 도시에는 기세가 웅장한 만리장성, 거대하고 화려한 천안문, 금빛 찬란한 자금성, 산수가 아름다운 이화원, 신비로운 13릉, 안개 자욱한 북해공원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이화원을 방문하였다.

고궁(구궁)은 높이 11m, 사방 4km의 길이의 담으로 둘러싸인 성으로 현존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옛 건축물로, 명나라 때인 1406 ~ 1420년에 건축되어 그 뒤 여러 차례 개축, 보수되었다.

자금성은 명·청의 황궁으로 서울의 절반 크기의 넓이로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용, 사자, 황금빛 지붕이 천하를



호령하던 오만과 사치와 영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다. 동서로 760m 남북 960m의 정방형 면적이 72만m², 건물은 모두 주황빛 9,999칸이나 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므로 만 칸을 채울 수 없다고 하여 1칸을 모자라게 축조한 것이다.

대칭형으로 만든 모든 궁전은 높이 10m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벽 밖으로는 수로가 있어 내부 침입을 막았다고 한다. 내부는 외조와 내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조는 황제가 정무를 내정은 황제와 가족, 관비들이 거쳐하던 곳이다. 당대의 부귀영화와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곳으로 1925년 중국정부는 고궁 박물관으로 지정하였다. 약 90만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세계최대의 박물관임을 느낄 수 있었다.

북경시 서쪽 교외에 있는 이화원은 서태후의 정원으로 아편전쟁 때 불탄 후 1888년 서태후가 군비를 유용해 다시 개수하고 이화원이라 이름을붙였다. 그로 인해 해군의 군함 건조비를 유용하여 해군이 감소하고 1894년 청·일 전쟁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총 면적 290ha, 즉 15만평의 엄청난 규모로서 인공호수인 곤명호, 인공으로 축조된 만수산, 728m의 긴 회랑의 건축물, 3,000여 채에 명공화백의 그림에 이르기까지 가히 당시 황제의 부와 권력 아니 서태후의 세도도 짐작케 한다. 이화원을 뒤로 하면서 동태후를 물리치고 황실을 주무르고 세상을 호령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펼쳐버릴 수가 없었다.

[10월 30일(금)]

오전에 천단공원을 관람하였다. 천단은 중국 베이징 직할시 충웬구에 있는 사적으로, 명청시대 중국에서 군주가 제천의식을 행하던 도교 제단이다. 매년 풍년을 기원하는 것은 황제의 연례행사였고, 비



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 고대 규모로는 가장 큰 제단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대지면적은 약 273만m²로 황궁인 자금성의 네배다. 1961년 국무원에서는 최초의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 중 하나로 선포를 했고, 1998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되었다.

천단공원 관람을 마치고 중국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왕푸징(王府井)에 갔다. 원래 왕푸징은 황실의 저택들이 있었던 곳으로 우물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왕푸징 거리는 1999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보행 거리를 개통하였는데 그 거리가 810m라고 한다.

왕푸징 입구에 있는 유명한 베이징뽀띠엔(北京飯店)의 간판이 화려하다. 230여 년 전 연암 선생이 북경에 갈 때 보았던 聞名應駐馬 尋香且停車(이름 듣고 말을 멈추고, 향기 찾아 수레를 세운다.), 神仙留玉佩 公卿解金貂(신선은 옥패를 풀고 공경은 초구를 벗네.)이라고 쓰인 주막의 깃발 대신에 찬란한 조명이 거리를 비추고 KFC(肯德基), 맥도날드(麥當勞), 베스킨라빈스(芭斯羅繽), 던킨도너츠(唐恩都樂), 코카콜라(可口可樂) 등 서구의 국제적 기업 간판만 눈에 들어온다. 대나무 꼬챙이에 끼인 채 움직이는 전갈만 중국적인거 같다.

드디어 우리 일행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10월 30일 오후 중국 업무 담당자 왕씨의 환송을 받으면서 , '아시아나 항공 OZ 0334'편으로 북경공항을 출발하였다.

인공위성에서 볼 수 있다는 유일한 인공 구조물인 만리장성의 위용, 넓은 대륙에 고이 간직한 많은 유산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지만 내 조국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대륙의 곳곳에 자리한 우리 고구려 문화유적, 선조들의 독립운동 흔적들, 조선자치구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의식과 강한 민족애와 삶의 열정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조국애와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충분한 기회였다. 그리고 초·중·전문대학교의 방문을 거울삼아 현장에서 애국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가 되리라고 우리방문단 일행은 다짐해 본다.

인천에 도착하니 4박5일 동안의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피곤이 밀려왔다.